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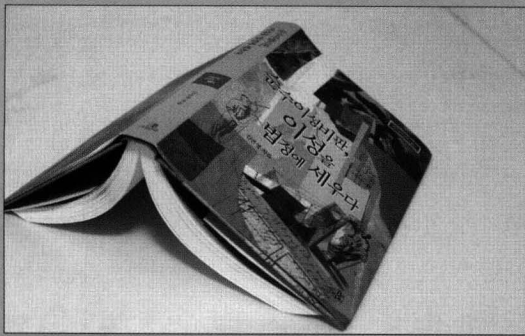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선정기

‘칸트를 건디는’

철학적 해법

육질적 삶의 생활인에 선사한

‘모처럼의 지적 산책 도구’



‘이 참에 한 해를 정리하는 랭킹 차트를 꾸며볼까 ...’ 12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테이블에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올해의 무엇무엇’이니 ‘한해의 10대 무엇’ 하는 따위엔 너나없이 식상한 지 오래다. 더욱이 열두 달치 책을 몽땅그려서 열 매긴다는 것은 저술에 쏟은 공력과 지식을 회롱하는 일이다. 그저 이달에 또 어떤 책이 있나 눈여기고 귀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갑신 한 해의 문화적 축적에 경의를 표하며 갈무리하는 자세일터. 역시나 싶게 한 해의 끝자락인 이달에도 좋은 책들은 많았다.

신장섭·장하준의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김환균의 《비극은 행진으로부터 시작된다》, 박완서의 《그 남자에 집》, 이기호의 《최순덕 성령충만기》, 진은영의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강석경이 지은 《강석경의 경주산책》, 도쿠나가 스스무의 《들꽃진료소》, 구본형의 《일상의 황홀》, 권오문의 《말말말》, 공지영의 《별들의 들판》, 김기원의 《숲이 들려준 이야기》, 스티븐 킨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이현비의 《재미의 경계》 등이 ‘이달의 책’ 후보군에 오른 책들이다.

계량화된 처세와 제로섬 게임의 승자에찬은 세대가 빛은 경험칙이자 오늘의 우상이다. 그 앞에선 ‘뭇 때문에 사느냐?’ 따위의 물음은 한낱 한가한 사변일 뿐. 《강석경의 경주산책》과 《들꽃진료소》, 《숲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처럼 행간의 호흡이 느린 책들을 주목한 것은 그대

서다. 가쁘게 돌아가는 영특한 세대에서 좀은 비껴나보고 싶어서다. 한편으론 지금의 경제·사회적 기호와 맥이 닿는다 싶어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재미의 경계》도 후보군에 없었다.

《강석경의 경주산책》은 ‘경주’를 다시 보게 한다. 강석경의 필치와 김호연의 붓과 색채가 어우러져 오늘에 반추하는 천오백년 전의 얼을 수채화처럼 펼쳐낸다. 20여 군데를 산책하며 고도의 신비 속으로 읽는 이를 안내한다. 일본의 의사 도쿠나가 스스무는 책 《들꽃진료소》만을 봐선 단연코 속물적 처세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안정된 종합병원을 마다하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해 그가 세운 ‘들꽃진료소’ 얘기는 온당한 삶의 공식이 뭘까 새삼 생각하게 하는 현장이다.

《숲이 들려준 이야기》는 표지글에서부터 ‘숲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설파한다. 책은 숲과 나무를 악기와 막물관, 콘서트홀, 문학과 예술, 신전에 비유하는가 하면, 생명과 우주의 차원으로까지 승격시킨다. 《재미의 경계》는 재미의 구조와 웃음과의 차이, 해학의 이론과 조건 등 ‘재미’란 삶의 엑기스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긴장의 축적과 해소 등 재미의 세 요소, 그리고 파울로스의 파국이론 모형과 뫼비우스 띠모형의 비교 등 미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학 원론’을 펼쳐보인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키 위해 동원됐던 영미식 해법은 과연 옳았던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은 정실자본주의와 재벌 만능 등 전통적 경제모순과 외환위기의 함수관계를 부정한다. 대신 “정부와 은행, 재벌로 연계된 추격시스템이 전지구화된 시스템의 도전에 갈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환란의 원인으로 들며 그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세속의 생활인일수록 한 해 동안의 육질적 삶을 되돌아보며 모처럼의 지적 산책을 즐겨봄은 어떨까.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에 특히 미련이 간 까닭이다.

철학입문의 디딤돌은 칸트라 하지만, 정작 칸트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다. 시인으로서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를 내놓은 진은영은 “일단 칸트를 건드릴 수 있다면 어떤 철학의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다”고 선언하며 ‘칸트를 건드릴 만한’ 철학적 해법을 일상의 개념틀에까지 이르러 제시한다. 것처럼 유일한 역작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야말로 ‘이달의 책’으로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서물이다.

책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칸트세계를 문학적 감수성과 잠재된 운문적 성찰로 번역해 낸 특이한 저작이다. ‘칸트는 철학의 통과레이며 칸트에 매혹당해 보라’고 권하는 저자는 자신만의 언어로 칸트와 순수이성과 감성과 오성을 규명한다. 칸트의 삶과 철학, 선형적 연역과 변증론까지 포괄한 순수이성비판의 고찰, 그리고 철학사적 의미를 통해 새삼 ‘칸트’와 ‘이성’의 면모를 충실히 사유케 한다. ✎